

#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변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Triadic data 적용

신성희<sup>1</sup> · 고숙정<sup>1</sup> · 양유정<sup>1</sup> · 오현수<sup>1</sup> · 장미영<sup>1</sup> · 최종명<sup>2</sup>

<sup>1</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동서간호학 연구소, <sup>2</sup>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Comparison of Boys' and Girls' Families for Actor and Partner Effect of Stress, Depress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Triadic Data Analysis

Shin, Sung Hee<sup>1</sup> · Ko, Suk Jeong<sup>1</sup> · Yang, Yu Jeong<sup>1</sup> · Oh, Hyun Su<sup>1</sup> · Jang, Mi Young<sup>1</sup> · Choi, Joong Myung<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Science and East-West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Seoul

<sup>2</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families of boys or of girls for actor and partner effect of stress, depress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s perceived by mother, father and adolescent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183 families (104 boys' families, 79 girls' families) who met eligibility criteria. All measures were self-administer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 **Results:** In boys' families, boys' depression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showed actor effect on boys' suicidal ideation. Boys' stress showed indirect effect on boys' suicidal ideation through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boys' 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showed indirect partner effect on boys' suicidal ideation through boys' depression. In families of girls, girls' depression and stress showed actor effects on girls' suicidal ideation. Girls' communication with mother showed indirect effects through girls' depression. Also girls' stress showed indirect effect through girls' depression. Stress in mothers and/or fathers showed partner effect on girls'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To intervene i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promote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and based on parent's psychological states.

**Key words:**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Communication, Stress, Adolescent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자살문제가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2000년 14%

였던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률이 2010년 28%로 급상승하였다[1].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4.4%가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며, 19.0%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1].

자살생각은 반드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에 선행되는 위험한 예측지표로서, 특히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무의식중에 잠복되어 성장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자살시

주요어: 자살생각, 우울, 의사소통, 스트레스, 청소년

\*이 연구는 2011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10680).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yung Hee University in 2011 (KHU-20110680).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and East-West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Received: February 3, 2014 Revised: March 6, 2014 Accepted: June 2,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도로 표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되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2].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3]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중학생 시기이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에 대해서도 54.1%가 '중학생'이라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초기 청소년기로, 2차 성징으로 인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서 억제된 환경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4]. 또한, 부모 및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자신의 존재가치,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에 당면하게 되어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가치관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이다[5].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은 경쟁적인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빠르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스트레스가 시작되고 중학교 이후에 더욱 가속화된다[6,7]. 또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연령층이 10~14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5], 15세 전후에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30세에 이르러 실제 자살시도를 할 확률이 11배 이상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중재할 필요가 있다[8].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다 [2,6]. 특히, 우울은 자살의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대표적인 질환으로 연구되어 왔고, 청소년기의 혼란 정신장애로 보고되어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우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으로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은 자살시도와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7].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신체적, 인지, 사회적 발달은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수반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업적 수행과 발달과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쉽게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7].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아직 자신의 미성숙함을 절감하는 갈등을 겪으며 부모-자녀 간의 부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10,11]. 청소년은 가정 외에도 학교와 사이버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형태의 생활사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교사, 친구 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신의 정체감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5]. 부모-자녀 의사소통으로 표현되는 부모-자녀 관계도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다[5,12]. 가족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친밀감, 부모 지지 등은 선행 연구에서 우울과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음의 영향이 있으며,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변인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와 자살을 매개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된다[5,6,9,12]. 즉,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을 적게 느끼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부모와 자녀의 생활양식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을 점차 단절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5,6]. 이는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의 관계는 남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발달로 남녀 구별이 뚜렷해지고 더불어 성격, 행동, 태도 등 심리적 특성도 차이가 생기기므로 발달학적 특성과 성(gender)을 고려하여 자살생각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살시도는 남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우울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11~12세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정도가 높아지고, 13~15세 사이에 급격히 격차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여학생의 우울 수준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다[14].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 변화가 많고 감정을 내향화 하는 특성을 지닌 여학생의 경우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고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만, 관계와 애착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치명적인 시도가 적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과 감정을 행동화하는 특성 때문에 자살 시도율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나 최근 청소년 자살이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살연구는 주로 자살의 원인을 일부 측면에서만 살펴보거나, 개인내적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구체적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족 역동적 연구가 부족하다[16,17]. 대부분 청소년 개인체계 요인을 주요 관점으로 보거나, 가족체계 관련요인과 학교체계 관련요인은 일부분만 다루었고, 개인, 가족, 학교 등을 고려하였다 할지라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련 요인을 단순변인으로서만 다루므로써 실제적으로 가족 변인들이 각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2,5,16,18]. 특히, 부모-자녀 간 변인들의

역동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의 응답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5,18].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는 양자 간 연구도 부모, 자녀 각각의 입장에서 연구되었고,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쌍으로 수집한 연구일지라도 분석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합산하여 한쪽의 특정 변인이 다른 한쪽의 결과에 미치는 일 방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19].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 분석은 어느 한쪽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양방향 간 상호 역동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Kenny[20]는 상호의존성의 자료를 각각 독립적 자료 형태로 분석하면 영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제1종 오류를 크게 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의존적인 커플자료는 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PIM은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 등 짝 관계에 있는 두 사람(dyadic) 또는 세 사람(triadic)에게 나타나는 양방 간 영향을 평가하고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의 예측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되며, 특정 관계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준다[21]. APIM에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의 구성 요소가 있으며 한 개인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라 하고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 효과라고 한다[20]. 실제로 APIM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부모 간의 상호영향력을 분석한 국외논문은 많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2,23].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자녀의 심리적 변인을 가족 관계의 맥락에서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중학생의 자살예방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APIM 모형을 적용하여 중학생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뿐 아니라 부모 각각의 심리적 변인이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성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삼자관계자료(아버지-어머니-자녀)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변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중학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한다.

둘째, 남녀 중학생 집단의 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를 비교한다.

셋째, 남녀 중학생 집단의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한다.

## 3. 연구의 개념 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 틀은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커플관계자료 분석을 위해 Kenny[20]가 제안한 APIM 모형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과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Figure 1).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은 자신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에 직·간접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학생 남녀의 우울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자신의 스트레스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스트레스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 자신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 자녀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남녀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신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남녀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의사소통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버지-어머니-자녀의 삼자관계 자료(triadic data)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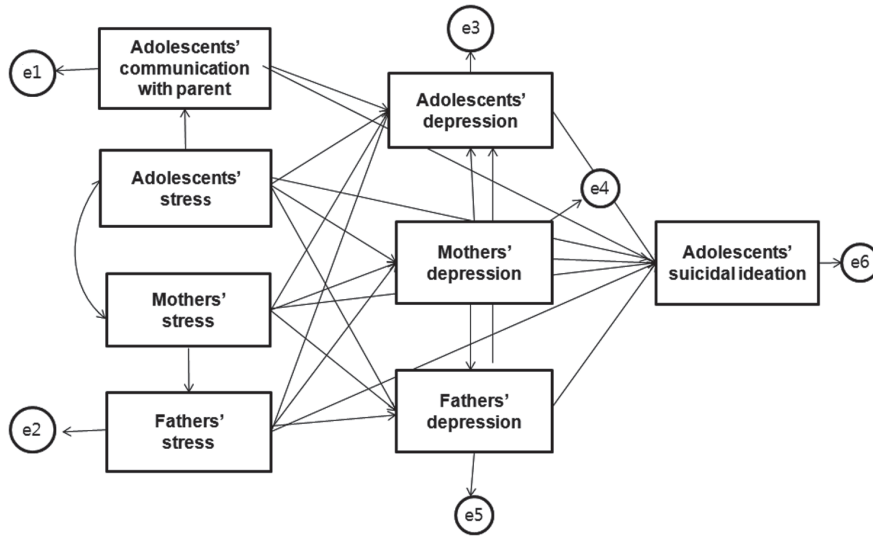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model for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를 임의표집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중학생 자녀, 아버지, 어머니를 쌍으로 이루는 183 가족 총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남학생 가족 104쌍, 여학생 가족 79쌍). 경로분석의 경우 표본의 크기는 추정되는 모수 개수의 최소한 5배가 되어야 하므로, 모수가 22개인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최소한의 표본 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 도구

### 1) 자살생각

중학생의 자살생각은 1988년 Reynold가 개발하고 Shin[24]이 번안 및 수정한 자살생각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 SI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사고를 측정하는데 유리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30 문항으로 “전혀 생각한 적 없다” 1점에서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 7점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죽고 싶은 생각 뿐 아니라 의도와 계획을 포함하며, 문항평점 1~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였고[23],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Cronbach's alpha = .98, 여학생은 Cronbach's alpha = .94였다.

###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1982년 Barnes와 Olson이 개발하고 Min[25]이 번안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도구(Parents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중 자녀용을 이용하여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문항평점 1~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각각 개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청소년 대상의 선행 연구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으며(Cronbach's alpha = .73~.82)[24,25],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85~.88)를 보였다.

### 3) 스트레스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Byun[26]이 개발한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 가정, 대인관계, 자아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심하게 받는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였고[26],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Cronbach's alpha = .94, 여학생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부모의 스트레스는 1981년 McCubbin이 개발한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기초로 Kim과 Kang[27]이 우리나라의 가족상황에 맞도록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의 인지수준을 부부, 자녀, 재정, 건강,

직업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4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는다” 0점에서 “심하게 받는다” 5점의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각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였으며[27],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 = .90-.94)를 보였다.

4) 우울

중학생과 부모의 우울은 Radloff[28]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도구를 이용하여 중학생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평균점 0-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과 부모 각각의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성인과 청소년 각각 Cronbach’s alpha = .85였고[28],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 = .89-.92)를 보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3월에서부터 4월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KHU IRB 2012-S01)을 얻은 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동, 서, 남, 북과 중앙으로 나눈 후 각 지역 당 2개의 중학교, 총 10개의 중학교를 임의표집하여 전화로 각 학교의 교감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약속된 날짜에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직접 찾아가서 1, 2, 3학년 각 학년 당 한 반씩을 배정 받고, 배정 받은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익명으로 처리될 것 등의 윤리적인 측면과 설문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를 들은 후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동의한 중학생에게 자녀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 총 3부씩을 나눠 준 후, 가정에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녀와 부모 각각의 서면 동의를 설문지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봉투 안에는 연구 목적과 설문 방법이 담긴 설명서, 연구자의 연락처, 가족코드가 부여된 자녀용, 아버지용, 어머니용 설문지, 서면 동의서와 완성된 설문지를 각각 넣고 봉인 할 수 있는 세 장의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에도 설문내용이 비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00쌍(600부)의 설문지 중 186쌍(93%, 560부)이 회수되었고, 완성된 질문지 중 가족단위로 쌍을 이루지 못한 경우, 가족 모두의 서면 동의서가 동봉되지 않은 경우,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경우는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183쌍(549부)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단위의 커플관계 자료로 분석하므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오직 가족코드만 이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책임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캐비닛에 넣어 잠근 상태로 보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5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남녀 중학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은 기술통계와 Chi-square로 분석하였다.

둘째, 남녀 중학생 집단의 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차이는 평균, 표준편차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남녀 중학생 집단의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 Comparative Fit Index (CFI),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로 확인하였고, 남녀 중학생 집단의 경로모형의 차이는 Chi-squar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어머니-자녀의 삼자관계 자료(triadic data)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모두 계시는 양부모 가정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한 쪽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한 부모 가정 또는 양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 가정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중학생 가정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1. 남녀 중학생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부모를 포함한 중학교 남학생 가족 104쌍과 여학생 가족 79쌍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형제순위, 종교, 가정형편과 학교성적을 확인하였다(Table 1). 학년은 중학교 1 (33.2%), 2 (30.8%), 3 (36.0%)학년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고, 형제 순위는 두 집단 모두 첫째가 가장 많았으며(남학생 59.6%, 여학생 70.9%),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남학생 48.6%, 여학생 44.3%). 가정경제형편은 두 집단 모두 '중'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남학생, 52.9%, 여학생 60.3%), 학교성적은 남학생은 '중'(52.9%), 여학생은 '상'(51.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 = 0.99 - 8.04$ ,  $p = .090 - .611$ ).

## 2. 남녀 중학생 집단의 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차이

남녀 중학생 집단의 자녀의 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스트레스 정도와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자살생각은

남학생이  $1.47 \pm 0.91$ 로 여학생  $1.62 \pm 0.85$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자녀의 우울 점수는 남학생  $0.68 \pm 0.48$ , 여학생  $0.69 \pm 0.42$ 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스트레스는 남학생  $2.01 \pm 0.67$ , 여학생  $2.25 \pm 0.60$ 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았다( $t = -2.48$ ,  $p = .014$ ).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은 남학생  $3.39 \pm 0.84$ , 여학생  $3.50 \pm 0.74$ ,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남학생  $3.62 \pm 0.80$ , 여학생  $3.72 \pm 0.69$ 였으나 통계적으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우울 정도는 남학생 가족  $0.68 \pm 0.39$ , 여학생 가족  $0.58 \pm 0.42$ 로 남학생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는 남학생 어머니가  $1.89 \pm 0.56$ 으로 여학생 어머니의  $1.73 \pm 0.47$  보다 약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2.04$ ,  $p = .042$ ).

아버지의 우울 정도는 남학생 가족이  $0.64 \pm 0.42$ , 여학생 가족이  $0.57 \pm 0.36$ 으로 남학생 아버지의 우울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N = 183 Families)

Variables	Categories	Boys' families (n = 104)		Girls' families (n = 79)		$\chi^2$ (p)
		n (%)	n (%)	n (%)	n (%)	
Grade	1	33 (31.7)	27 (34.6)			1.24 (.537)
	2	36 (34.6)	21 (26.9)			
	3	35 (33.7)	30 (38.5)			
Sibling order	1	62 (59.6)	56 (70.9)			2.64 (.267)
	2	37 (35.6)	21 (26.6)			
	≥ 3	5 (4.8)	2 (2.5)			
Religion	Christian	50 (48.6)	35 (44.3)			8.04 (.090)
	Buddhist	9 (8.7)	12 (15.2)			
	None	44 (42.7)	32 (40.5)			
School scores	High	37 (35.6)	41 (51.9)			5.37 (.068)
	Middle	55 (52.9)	29 (36.7)			
	Low	12 (11.5)	9 (11.4)			
Social economic status	High	46 (44.2)	29 (37.2)			0.99 (.611)
	Middle	55 (52.9)	47 (60.3)			
	Low	3 (2.9)	2 (2.5)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all Variables between Boys' Families and Girls' Families

(N = 183 Families)

Variables	Boys' families (n = 104)		Girls' families (n = 79)		t (p)
	M ± SD	M ± SD	M ± SD	M ± S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1.47 ± 0.91	1.62 ± 0.85			-1.07 (.285)
Adolescents' depression	0.68 ± 0.48	0.69 ± 0.42			-0.24 (.812)
Adolescents' stress	2.01 ± 0.67	2.25 ± 0.60			-2.48 (.014)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3.39 ± 0.84	3.50 ± 0.74			-0.86 (.391)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mother	3.62 ± 0.80	3.72 ± 0.69			-0.88 (.380)
Mothers' depression	0.68 ± 0.39	0.58 ± 0.42			1.71 (.089)
Mothers' stress	1.89 ± 0.56	1.73 ± 0.47			2.04 (.042)
Fathers' depression	0.64 ± 0.42	0.57 ± 0.36			1.15 (.252)
Fathers' stress	1.74 ± 0.57	1.76 ± 0.55			-0.25 (.803)

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스트레스 점수는 여학생 아버지는  $1.76 \pm 0.55$ 로 남학생 아버지  $1.74 \pm 0.57$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남녀 중학생 집단의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남녀 중학생 집단의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FI, CFI, TLI, RMSEA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 남학생은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인 동성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모형에 넣었을 때  $\chi^2=9.83, p=.277, CFI=0.99, NFI=0.98, TLI=0.96, RMSEA=0.04$ 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남학생 가족과 여학생 가족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도  $\chi^2=24.85, p=.304$ 로 나타나 두 경로모형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Figures 2, 3).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 결과, 남학생의 자살생각에는 자신의 우울( $\beta=.63, p<.001$ )이 가장 큰 자기효과가 있었으며, 아버지-자녀 의사소통도 직접적인 자기효과( $\beta=-.17, p=.013$ )와 자신의 우울( $\beta=-.19, p=.010$ )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신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자기효과는 없었으나, 아버지-자녀 의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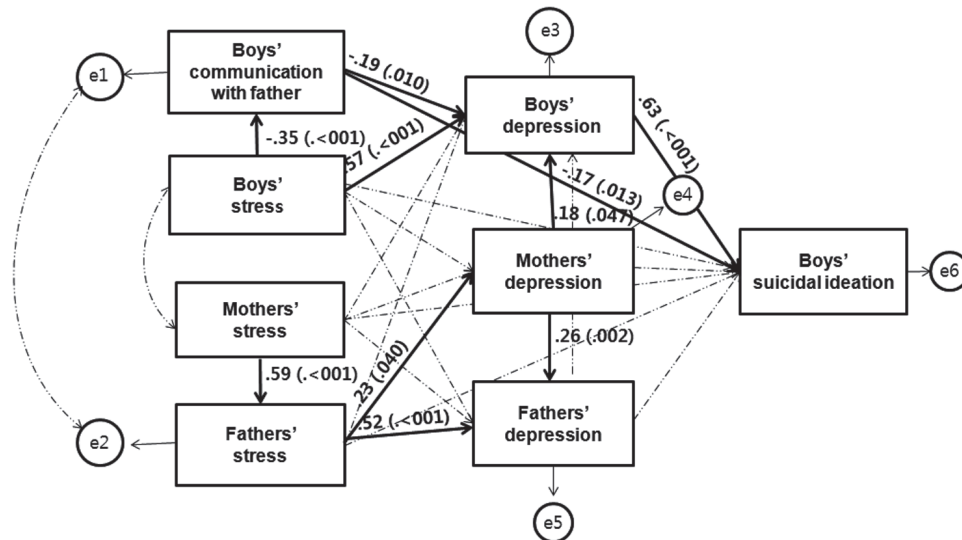


Figure 2. Test of hypothetical model for boys' suicidal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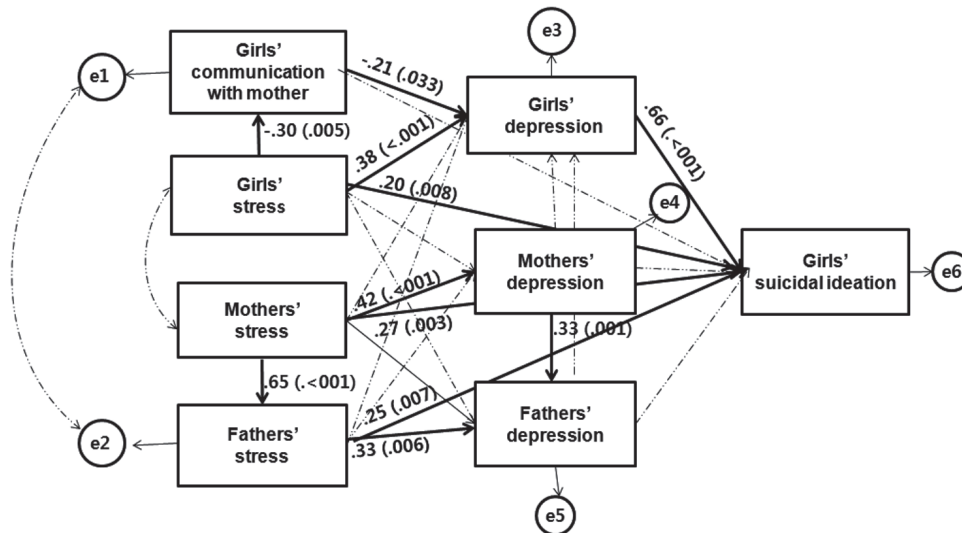


Figure 3. Test of hypothetical model for girls' suicidal ideation.

통( $\beta = -.35, p < .001$ )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와 우울( $\beta = .57, p < .001$ )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남학생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상대방효과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우울( $\beta = .23, p = .040$ )과 자녀의 우울( $\beta = .18, p = .047$ )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상대방효과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스트레스( $\beta = .59, p < .001$ )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자살생각에는 자신의 우울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만이 직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다.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자살생각에는 여학생 자신의 우울( $\beta = .66, p < .001$ )과 스트레스( $\beta = .20, p = .008$ )가 직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스트레스( $\beta = .27, p = .003$ )와 아버지의 스트레스( $\beta = .25, p = .007$ )의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beta = -.30, p = .005$ )과 자신의 우울( $\beta = .38, p < .001$ )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우울( $\beta = .33,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상대방효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매개( $\beta = .65, p < .001$ )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상대방 효과도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아버지, 어머니, 중학생 자녀의 삼자관계 자료(triadic data)를 Kenny[20]가 제안한 APIM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트레스, 우울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살생각의 차이가 없었던 Lim[16]의 연구와는 일관된 결과이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남녀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Park[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커플단위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양부모와 함께 사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구조와 양육부모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가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양부모 가정의 자녀만을 수집한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그러므로 추후 커플관계 또는 삼자관계 자료의 반복 연구를 통해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생각 경로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자기효과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 자신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의 자기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의 자기효과 뿐 아니라 자신의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자기효과도 있었다. 자기효과의 크기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보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세 배 이상으로 컸다. 즉, 단순상관관계에서도 자살생각은 남녀 집단 모두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2]. 자살 청소년의 3/4이 자살 전에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생각이 지속되는 청소년의 40%에서 우울의 주요 정서가 발견된다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16]. 청소년의 우울은 전반적인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만성적으로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살 예방에 있어서 우울의 조기 사정과 선별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

남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자기효과는 없었으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의 강력한 매개효과를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다. 즉, 중학교 남학생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직접적으로 남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남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이 낮은 우울성향과 낮은 스트레스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5,6]. 역으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폐쇄적일 경우, 가정 분위기가 경직되고 가족 구성원 간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가족의 결속력을 저하시키고 중학생 자녀의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에서도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모형에 넣었을 때,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즉,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은 동성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우울정도가 낮아지고, 자살생각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는 이성의 부모보다 동성 부모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14]. 또한, 청소년 시기는 남학생의 경우 진로, 삶에 대한 대화 및 상담과 정서적 유대를 위해 동일시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여전히 아버지가 애정표현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학업, 신체발달과 성교육에 관심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한다는 Kim[7]의 지적과도 일관된다. 그러므로 중학교 남학생의 자살생각을 증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2.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방 효과

남학생 부모의 심리적 변인들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상대방효과는 없었으나,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자녀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을 경우 직접적으로 자녀의 자살생각을 높이지는 않지만, 자녀의 우울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자살생각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며, 부모의 심리적 변인을 부모로부터 직접 측정 한 본 연구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을 측정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10,26].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 크기는 남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자녀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크기와 유사하였다. 즉, 개방적인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남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증재되는 효과만큼 어머니의 우울을 증재하는 것도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같은 크기의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남학생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우울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아버지 자신의 우울과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우울을 증가 시킴으로써 자녀의 자살생각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중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는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자녀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학교 남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특히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을 증재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적이고자 하면서도 상호의존성이 강한 중학생의 경우가족적 측면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우울을 증재하는 것도 청소년 변인을 증재하는 만큼 청소년 자살생각 증재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3.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자기효과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자기효과를 살펴 보면, 여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있었다. 그 효과크기는 남학생의 우울이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와 유사하였다. 여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신의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다.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는 우울에 비해 1/3 정도에 해당하나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크고,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까지 있음을 고려할 때, 여학생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더불어 자살생각에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6,7]. 여학생의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특히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증재가 가능하나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클 때, 어머니와의 효과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울 정도를 크게 증가시켜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학교 여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학생 자신의 우울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아울러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증재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4.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방 효과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변인이 남학생의 자살생각에는 직접적인 상대방효과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여학생의 자살생각에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모의 심리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Shin 등[14]의 지적과 관련이 있다. 상대방효과 크기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비슷한 크기로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는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자녀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상대방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아버지의 우울을 증가시켜 가족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학생 어머니와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심리적 변인은 여학생의 자살생각을 간호 중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이 가장 강력한 자기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도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을 중재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상대방효과는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므로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를 위한 가족단위의 중재 전략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우울의 강력한 자기효과 외에 자신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자기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스트레스도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상대방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자신의 우울감소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전략을 세워야 하고 부모의 심리적 변인에 예민한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더불어 자살생각에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여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재함으로써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대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의 교육 요구,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그러므로 추후 청소년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변인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두어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거나 가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라도 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변인만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부모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부모와 자녀로부터 각각 자료를 수집하였더라도 부모자료와 자녀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함으로써

커플 단위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상호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Kenny[20]가 제안한 APIM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커플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영향력과 효과크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중학생의 자살생각 경로 모형에 남녀 성차를 확인하고, 성에 따라 청소년 자살생각에 청소년과 부모의 심리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나 학교 정신보건사업의 자살예방 및 부모와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부-모-자녀의 삼자관계 자료(triadic data)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 남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남학생 가족과 여학생 가족의 중학생 자녀의 자살생각 모형은 차이가 있었으며, 각 변인들이 중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 동성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의 경우 남학생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을 매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자신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상대방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남녀학생에게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성차에 따른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서적 관리와 행동 관리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모 대상의 효과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변인이 자녀의 자살생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정서와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영향요인 외의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커플관계 및 삼자관계 자료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부모 가정 뿐 아니라 점차 복잡해져가는 우리나라 가족구조를 반영한 한부모 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 입양가정의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부모 대상의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와 구체적인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Kim G, Ahn J, Ha K, Lee CH, Woo JM, Lee JK, et al.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NECA) round-table conference consensus statement: Multidisciplinary responses to suicide, the first ranked cause of death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3;56(2):111-119. <http://dx.doi.org/10.5124/jkma.2013.56.2.111>
- Hong YS.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005;2(1):249-272.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Seoul: Author, 2007. Report No.: 2007 Youth Counseling Research 134.
- Chung HK, Ahn OH, Kim KH.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3;10(2):107-126.
- Oh HA, Park YR, Choi MH.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8;14(1):35-43.
- Lee JY, Kim HC, Hyun MH. The relationship of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10(4):375-394.
- Kim JM.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m,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2):809-829.
- Reinherz HZ, Tanner JL, Berger SR, Beardslee WR, Fitzmaurice GM.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6;163(7):1226-1232. <http://dx.doi.org/10.1176/appi.ajp.163.7.1226>
- Park BK. Family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7;11(1):1-17.
- Hammen C, Brennan PA. Severity,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on and risk for adolescent offspring diagnoses in a community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03;60(3):253-258.
- Evans E, Hawton K, Rodham 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04;24(8):957-979. <http://dx.doi.org/10.1016/j.cpr.2004.04.005>
- Jang YS, Kang KS, Kim HJ.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3;24(4):41-53.
- Petersen AC, Sarigiani PA, Kennedy RE.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91;20(2):247-271. <http://dx.doi.org/10.1007/bf01537611>
- Shin M, Chung KM, Kim ES.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Korean adolescents: Onset and developmental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2;31(1):93-114.
- Park B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7;16(3):505-522.
- Lim YS. Risk factors, assess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s suicid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04;1(1):81-109.
- Sohn JN. A structural model of impulsive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4):418-430.
- Park HS, Jung SY. Development of a multisystem core competency support model to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0;19(3):278-287.
- Choi SY, Lee JM.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adolescent's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8;17(5):835-845.
- Kenny DA.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96;13(2):279-294. <http://dx.doi.org/10.1177/0265407596132007>
- Cook WL, Kenny DA.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05;29(2):101-109. <http://dx.doi.org/10.1080/01650250444000405>
- Koh BD, Rueter MA. Contributions of parent-adolescent negative emotionality, adolescent conflict, and adoption status to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011;40(6):825-836. <http://dx.doi.org/10.1080/15374416.2011.614579>
- Wade SL, Taylor HG, Drotar D, Stancin T, Yeates KO, Minich NM.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Their relationship to family adapt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Head Trauma Rehabilitation*. 2003;18(2):164-176.
- Shin MS.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92.
- Min HY. Circumplex model an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1990.
- Byun YJ. A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irrational belief and stres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1994.
- Kim TH, Kang I. A study on the mid-life family stress and family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90;28(4):103-117.
- Radloff LS.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7;1(3):385-401. <http://dx.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Yun EK, Shin SH.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43(3):321-330.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321>
- Chien WT, Lee I. An Exploratory study of parents' perceived educational needs for parenting a child with learning disabilities. *Asian Nursing Research*. 2013;7(1):16-25. <http://dx.doi.org/10.1016/j.anr.2013.01.003>